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의 중요도 및 성취도 비교 분석

김수진*

단국대학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박사과정

남정민**

단국대학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주임교수

국 문 요 약

최근 경제불황 및 실업률 증가,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창업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정부는 혁신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D대학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중요도 및 성취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요인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질적 성장 및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이용한 중요도-성취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중요도가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에서 가장 개선의 우선순위가 높은 요인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지원」, 「경영자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 「창업현장실습」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가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자체 창업투자 재원 확보(실행), 대학의 액셀러레이터 역할 및 기능 강화, 학생창업자 입주공간 우선 지원 및 확대, 기술 기반 학생창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지원),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창업교과목 개발 및 보급 등을 제언하고자 한다.

핵심어: 대학 창업교육, 창업지원, IPA

1. 서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산업으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산업 간의 격차 및 코로나19로 실업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의 청년(15세~29세)실업률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8.9%, 2020년 9%, 2021년 7.8%로 최근 3년 평균 실업률은 8.6%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의 자동화 기술로 인하여 노동 시장 및 일자리 변화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변지유·이장희, 2020). 이와 같은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 창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이 중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창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고 창업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은 15개 부처와 17개 광역지

자체에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 예산을 지원하였다.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예산은 역대 최대 금액인 19조원이 편성되었을 정도로 정부가 창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2021).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 지원프로그램은 여전히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교육 측면에서 양적으로는 성장하였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경영이론 또는 교양 수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남정민, 2017),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창업교육 현황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변지유·이장희, 2020). 이는 다양한 창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단발적인 성격과 참여자들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백서인, 2017).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 tnwls142@dankook.ac.kr

** namjm@dankook.ac.kr

알리미를 통해서 대학의 창업생태계, 창업교육, 지원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창업강좌(이론형, 실습형) 수, 학생창업 지원 현황 등 공급자 중심의 양적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학의 실수요자인 학생들이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성취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공백을 채우고자 그간 이루어진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공급자 중심의 양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에 두고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현재 성취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지원 환경과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대학이 수행해야 할 창업교육 및 지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수요자들의 인식과 요구를 확인하는 것은 창업분야에 있어서 대학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 Bandura, 1997)은 인간 행동의 개발을 위한 사회적 학습과정에서 사회적 맥락의 역할과 행동의 관찰과 모방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김주섭·박재춘, 2019). 이러한 사회인지이론은 기업가정신 연구에 대한 지식구조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지식구조(knowledge structure)는 개인이 직면한 환경에서 개인의 효능감을 강화하는 정신모델을 의미한다(김주섭·박재춘, 2019).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지각하는 과거의 성공경험이나 실패경험이 사람들의 인지적 역량이나 실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Bandura, 1997). 즉, 사람들은 목표달성에 필요한 노력, 인지적 자원 및 행동을 자극하기 위한 동기부여과정(Gist & Mitchell, 1992; Kanfer, 1987)으로 자기규제적 행위(예: 자기효능감, 자기유능감 등)를 강조한다. 이러한 자기규제적 과정은 바람직한 목표와 자신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자기평가(self-evaluation), 자기효능감 등의 자신에 대한 정서적 및 인지적 평가인 자기반응(self-reactions)이 포함된다.

사회인지이론에서는 자기규제적 과정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성공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또는 정서

적 상태 등을 강조한다(Bandura, 1997). 먼저, 성공경험(enactive mastery experiences)은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자신에 대한 강한 신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실패나 부정적인 과거 경험 및 자기역량에 대한 의심은 개인의 신념 및 정서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Bandura & Jourden, 1991; Wood & Bandura, 1989). 둘째, 대리경험(vicarious experiences)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모방된 성취를 통한 대리적 경험 또는 모델링(modeling)으로도 강화된다. 셋째,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한 성취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긍정적인 피드백이 실적 성과로 이어진다면 사람들의 자기변화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언어적 설득만으로 사람들의 자기규제적 행위를 강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리적이고 정서적 상태(physiological and affective states)는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을 판단할 때, 자신의 신체적 및 정서적 상태에 의존하게 된다. 자기규제적 행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을 강화하여 스트레스나 부정적 정서적 성향을 감소시키고, 신체적 상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 창업가들의 창업 성공은 창업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성취경험,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를 통해 개발되기 때문에, 창업가들의 학습, 업무 및 창업경험, 인지적 능력, 문화 등은 창업가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Newman et al., 2019).

Newman et al.(2019)은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하여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자기규제적 행위(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제도 및 문화적 환경, 조직특성, 교육훈련, 업무환경, 역할모델과 멘토, 개인적 특성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미래의 예비창업가들이 속한 대학 내에 창업환경은 대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대리학습, 사회적 설득 및 정서적 상태, 성취경험 등을 통해 그들의 창업의지와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 내에 창업교육과 창업지원, 창업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2.1. 대학 창업교육

창업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준비와 창업교육은 창업 실패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창업교육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지식과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잠재적으로 창업가를 육성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윤영집·이종원, 2022). 창업교육은 창업아이템을 탐색하고 사업계획 수립,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식, 태도, 능력 등을 교육함으로써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함양하는 것이다(김용태, 2020). 즉, 창업교육은 창업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예비창업자 스스로에게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미래지향적인 교육이라 볼 수 있다(박재춘 외, 2021).

대학에서 예비 창업가 육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창업교육은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과프로그램은 기업가정신, 기술창업론, 창업 마케팅 등 여러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으며 비교과프로그램은 창업아이템 사업화,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창업경진대회,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다(윤석철, 2021). 특히 최근 3년간 국내 대학의 창업강좌 및 창업지원 현황을 보면 이론형 과목이 실습형 과목보다 많이 개설되었으며, 주로 교양과목 방식으로 개설되는 등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송영명·김예슬, 2020). 하지만 윤석철(2021)의 국내 대학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의 현황분석과 그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대학생들의 창업성과는 높지 않고, 창업 내 유관기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여 협력 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에게 창업에 대한 지식이나 실무적 기술 외에도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구축하고, 창의적 사고와 협업능력을 향상시켜 문제해결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창업 교육 과정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2. 대학 창업지원

대학은 인력과 자본, 기술 등이 부족한 대학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회계, 세무, 법률, 특허, 자금, 인프라, 시설, 네트워킹 등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국내 학자들은 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

게 분류하였다.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된 요소는 창업자의 잠재적인 능력과 특징 및 창업 아이디어 도출, 전문가 네트워크, 창업 공간,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보았다. 강영욱(2013)는 통합적인 창업지원프로그램은 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기술교육 및 훈련, 사후관리까지를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최동락(2012)은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창업자금지원, 경영교육지원, 컨설팅지원으로 분류하였고, 권명규·양혜술(2016)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를 창업자금지원, 창업교육지원, 마케팅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정부는 대학별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대학 창업지원 역량 모델’을 수립하였다. 이는 정부와 대학(공급자) 중심으로 제공된 창업지원 서비스를 대학(원)생 등 창업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여 정립한 대학 창업지원 모델이다.

<표 1> 대학 창업지원 모델

모델명		구분
모델1	정규교과과정	창업강좌(기업가마인드 함양, 사업아이템 창출, 기업가정신, 자금조달 등의 수업내용 포함)
모델2	비교과과정	창업동아리, 창업경진대회, 창업캠프, 창업특강, 창업서포터즈, 창업미일리지, 네트워킹, 창업포럼세미나, 투자유치
모델3	창업사업화	스키우팅, 액셀러레이팅, 투자, 전문보육, 마케팅 BM고도화, 우수인력추천, 경영자문, 공간 및 시설제공, 경영전문멘토링, 네트워킹
모델4	조직/인력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본부
	공간/장비	창업동아리방, 창업준비실, 공동창업보육실, 기업부설연구소, 메이커스페이스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실습, 창업현장실습, 창업 학점교류제, 창업연계전공, 창업장학금
	창업포털	창업활동(정규/비교과/창업 현황 등) 이력 관리 포털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 대학 창업운영 매뉴얼 3.0+ 재구성

III. 연구방법

3.1. IPA 분석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분석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이 지각하는 중요도와 성취도를 동시에 비교 및 분석하는 평가기법이다. 1970년대 경영학에서 최초로 소개되어 마케팅, 심리학, 건강, 경제, 관광, 서비스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Oh, 2001). IPA는 소비자가 지각하는 특정 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성취도를 각각 X와 Y축으로 하는 2차원상의 평면 위에 좌표로 요소를 표현하는 분석 방법이다(김문수, 2003). IPA의 가장 큰 장점으로 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제한된 인

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고객 만족을 높이는 데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제시하는데 있다(공기열, 2006). IPA는 조직이 전략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측정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이혜련·김정만, 2003). IPA는 고도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평가 속성의 평균값만 산출하면 4분면 Matrix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다(Martilla, J. A. & James, J. C. 1977).



<그림 1> IPA 중요도-성취도 분석 매트릭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25일간 D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08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표본 특성은 <표 2>와 같다. 남성 188명(30.9%), 여성 420명(69.1%)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19세~24세 539명(88.7%), 25세~30세 63명(10.4%), 기타 6명(1.0%)이었다.

<표 2> 표본의 특성

변수	집단	빈도	%
성별	남성	188	30.9
	여성	420	69.1
나이	19세~24세	539	88.7
	25세~30세	63	10.4
	기타	6	1.0
학년	1학년	108	17.8
	2학년	153	25.2
	3학년	186	30.6
	4학년	161	26.5

전공	인문·사회·교육계열	221	36.3
	상경계열	105	17.3
	공학계열	136	22.4
	자연계열	70	11.5
	예체능계열	41	6.7
	의학계열	35	5.8
창업 경험	없다	555	91.3
	있다	53	8.7
진로 계획	창업	26	4.3
	취업	468	77.0
	진학	85	14.0
	프리랜서	13	2.1
	기타	16	2.6
창업 교육 참여 경험	참여	140	23.0
	비참여	468	77.0

3.3. 측정도구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지의 진단 도구는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는 문항은 황진선(2007)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하였고, 창업교육 참여경험을 조사하는 문항은 한국고용정보원(2012)의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분석 연구보고에서 사용된 설문 내용을 참고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기초정보, 창업교육 참여경험, 창업교육 및 지원 제도 중요도,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성취도에 대한 요구를 조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총 3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SPSS 23.0을 이용하여 전체, 참여자, 비참여자의 중요도-성취도 평균값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후 중요도와 성취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 분석하였다.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T값과 유의확률의 수치를 파악 후 T값의 결과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매트릭스 분석을 통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표 3> 측정 도구

구분	내용	문항 수	출처
기초정보	창업교육 참여경험	1	한국고용정보원(2013)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중요도	창업교육 중요도	9	황진선(2007)
	창업지원제도 중요도	10	
창업교육 및 지원제도 실행도	창업교육 실행도	9	황진선(2007)
	창업지원제도 실행도	10	

IV. 연구결과

4.1. 창업 교육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IPA 검증 결과

먼저,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중요도 및 성취도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 중요도는 ‘자금 및 투자지원’(4.19),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4.08),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경영자문 지원’(4.04), ‘창업자 네트워킹 및 경영자문’(4.00),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등록 지원’(3.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평균은 3.87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D대학 학생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성취도 결과를 살펴보면 ‘창업전문가 멘토링’(3.50),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3.35), ‘창업자 네트워킹’(3.33), ‘스카우팅’(3.2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3.1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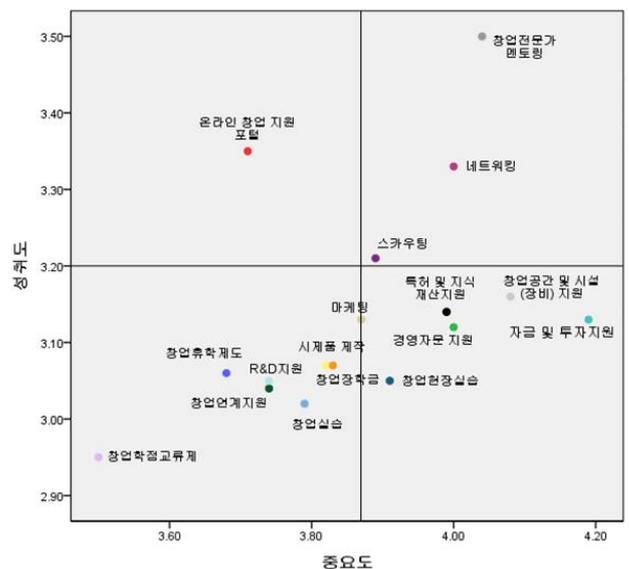
<표 4> 창업 교육 및 창업지원에 대한 IPA 검증: 전체결과

구분	중요도	성취도	중요도-성취도 차이	t	순위
스카우팅	3.89	3.21	.673	18.063***	12
네트워킹	4.00	3.33	.669	17.055***	13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 등록 지원	3.99	3.14	.855	20.297***	4
창업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4.04	3.50	.541	13.954***	16
시제품 제작 지원	3.82	3.07	.747	17.434***	8
자금 및 투자지원	4.19	3.13	1.063	23.389***	1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	4.08	3.16	.916	20.073***	2
경영자문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4.00	3.12	.887	19.999***	3
마케팅 및 판로 지원	3.87	3.13	.740	17.007***	9
R&D 지원	3.74	3.05	.684	16.438***	11
온라인 창업 지원 포털	3.71	3.35	.352	7.753***	17
창업 휴학제	3.68	3.06	.625	12.869***	14
창업 실습	3.79	3.02	.765	16.114***	6
창업 현장 실습	3.91	3.05	.854	18.110***	5
창업 학점 교류제	3.50	2.95	.553	11.867***	15
창업 연계 전공	3.74	3.04	.696	14.974***	10
창업 장학금	3.83	3.07	.757	15.355***	7

*참조 : 순위는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큰 순서로 제시함

4.2. 창업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

IPA 매트릭스 도출을 위하여 요인(특성)의 성취도, 중요도 평균값을 기준점으로 삼았다. <그림 2>는 D대학 학생들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IPA 매트릭스 분석결과이다. IPA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중요도는 높지만 성취도가 낮은 ‘자금 및 투자지원’,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지원’, ‘경영자문 지원’, ‘특허 및 지식재산지원’, ‘창업현장실습’에 대해 중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1사분면에 위치한 ‘창업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스카우팅’ 요소는 중요도와 성취도 모두 높은 특성들이므로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 시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 요소는 중요도는 낮지만 성취도가 높은 속성으로 창업교육 및 지원 운영자들은 이 항목들에 대해 대학의 자원이나 노력이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중요하게 고려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은 요소는 ‘시제품제작’, ‘창업장학금’, ‘창업연계지원’, ‘창업휴학제도’, ‘창업실습’, ‘창업연계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2> IPA 중요도-성취도 매트릭스(n=608)

V. 결론 및 논의

5.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D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IPA 방법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 순위는 ① 자금 및 투자지원(4.19) ②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4.08) ③ 전문가 멘토링(4.04) ④ 네트워킹 및 경영자문 지원(4.00) ⑤ 특허 및 지식재산 출원(3.99) ⑥ 창업현장실습(3.91) ⑦ 스카우팅(3.89), ⑧ 마케팅 지원(3.87) 등 순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도 순위를 살펴보면 ① 전문가 멘토링(3.50) ② 온라인 창업지원 포털(3.35) ③ 네트워킹(3.33) ④ 스카우팅(3.21) ⑤ 창업 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3.16) ⑥ 특허 및 지식 재산 출원(3.14) ⑦ 자금 및 투자 지원/마케팅 지원(3.13) ⑧ 경영자문 지원(3.12) 순으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의 총 17가지 요소의 중요도-성취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취도에 비하여 중요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D대학 학생들이 모든 17가지 요인에서 현재 실행하는 창업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학생’ 즉, 수요자에게 성취도 측면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 결과에 따라 대학의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PA 분석을 통해서 중요도와 성취도가 차이가 큰 요소는 첫째, 자금 및 투자지원이다. 초기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겪는 난관은 자금이다. 독창적인 아이디어, 우수한 기술과 팀워크, 열정 등을 앞세우더라도 경영과 영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다면, 기업이 성공에 도달하기 전에 유지와 생존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대학은 액셀러레이터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하여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 지원이다. 대학은 창업보육센터를 활용한 공간, 장비, 시설 등의 인프라가 있다. 하지만 학생창업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비교해보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스타트업은 실제로 교내 밖 창업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업은 성과 위주로 이루어지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평가를 잘 받아서 입주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 공간에 대하여 학생 창업자와 외부창업자의 입주 비율을 설정하여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간 등의 인프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세무·회계·재무·특허 등 경영자문 지원이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가 크다. 스타트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의 하나는 세무, 회계, 특허, 노무 등이 있다. 학생 스스로가 혼자 해결하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지원받는 성취도는 중요도보다 낮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내에 일정 시간 또는 요일별/분야별 전문가가 상주하고 신청 및 멘토 매칭 단계를 거쳐 학생 창업자가 필요할 때 자문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넷째, 특허 및 지식재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등의 무형자산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성공률은 2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 기반 학생스타트업의 지원 정책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을 통해 교내 학생들에게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사례 공유회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대학이 노력할 필요가 있는 요소는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이다.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은 이론 중심의 창업교육으로 내용이 한정적이고, 실습형 교육 콘텐츠와 커리큘럼이 매우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 개인 단위의 교육이 아닌 팀 단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창업 프로세스 기반의 실습형 교과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창업전공, 부전공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대학내 창업교육의 뿌리를 확고히 내리기 위해서는 창업학에 대한 학문적 접근과 창업에 대한 기술 습득과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제도(전공, 부전공) 도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 공급자 입장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이를 통해 대학의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5.2.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지닌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를 D대학 학생들로 제한함으로써 설문 대상자의 대표

성과 관련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상 및 표본의 확대가 필요하며 세부적으로 지역·창업유무·학교 특성에 따라 대학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에 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중요도와 성취도 차이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중요도와 성취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나 문항 구성에 한계가 있다. 셋째, 창업교육 참여자와 비참여자의 표본수가 균등하지 못해 비교 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창업교육 이수여부 또는 창업여부 등을 고려한 비교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가연구에 필요한 표본 확보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영욱(2013).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의 창업실행의지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내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공기열(2006). IPA 기법을 이용한 여가활동 평가. *관광연구*, 20(3), 285-303.
- 권명규·양해술(2016). 융복합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지원정책 및 기업가 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사업실패 부담감과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여. *디지털융복합연구*, 14(5), 21-37.
- 김문수(2003). 호텔정보시스템의 중요도-성과 분석. *관광연구*, 18(2), 289-300.
- 김용태(2020). 참여동기와 창업멘토링이 창업교육만족도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생 창업유망팀 300(U-300)'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5(2), 267-277.
- 김주섭·박재춘(2013). 조직문화와 긍정심리자본, 조직몰입의 인과관계에 대한 다수준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20(3), 51-74.
- 남정민(2017). 기업가정신 온라인교육의 효과성 검증플립러닝 및 PBL 기반기업가정신교육 적용 사례. *벤처창업연구*, 12(2), 31-40.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재춘·김달원·황지영·남정민(2021). *창업행동세미나*. 서울: 한경사.
- 백서인(2017).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학의 창업정책 비교: 칭화대학교, 도쿄공업대학, 싱가포르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9(3), 93-116.
- 변지유·이장희(2020).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 연구: 대학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EntreComp(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 도출. *벤처창업연구*, 15(6), 189-207.
- 송영명·김예슬(2020). 한국과 미국의 대학 내 창업교육 분석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32(4), 998-1006.
- 윤석철(2021). 국내 대학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의 현황분석 및 그 성과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교육연구*, 35(6), 141-173.
- 윤영집·이종원(2022). 대학생 창업교육이 셀프리더십, 혁신행동 및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국 대학생들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41(1), 23-42.
- 중소벤처기업부(2021). *창업생태계의 변화분석*. Retrieved (2021.12.10.) from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6105>.
- 통계청(2021). *청년실업률*. Retrieved(2021.12.08.) from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3
- 한국고용정보원(2013). *대학생 창업활동 및 창업지원제도 현황 분석*. Retrieved (2021.12.10) from <https://keis.or.kr/user/extra/main/3873/publication/publicationList/jsp/LayoutPage.do?categoryidx=131&pubIdx=1617&spage=1>
- 황진선(2007). *대학생의 창업교육 요구도와 창업의지*. 국내석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 Bandura, A.(1997). The anatomy of stages of change.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AJHP*, 12(1), 8-10.
- Bandura, A., & Jourden, F. J.(1991). Self-regulatory mechanisms governing the impact of social comparison on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6), 941.
- Kanfer, R.(1987). Task-specific motiv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to issues of measurement, mechanisms, processes, and determina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5(2), 237-264.
- Newman, A., Obschonka, M., Schwarz, S., Cohen, M., & Nielsen, I.(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403-419.
- Oh, H.(2001). Revisiting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ourism Management*. 22, 617-627.
- Wood, R., & Bandura, A.(1989). Social cognitive theory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3), 361-384.
- Yoon, S. C.(2021). A Study on the Status Analysis of Domestic University Entrepreneurship & Start-up Education and the Performance Factor. *The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35(6), 141-173.